

남북한 이웃국가 평화론

남북한의 통일방안

이승만	유엔 감시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장면	유엔 감시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박정희	평화통일 3단계 기본원칙 (한반도 평화 → 문호 개방, 신뢰 회복 → 남북한 자유 총선거)
전두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통일헌법 → 통일국회, 단일정부 → 총선거)
노태우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공존공영 → 남북연합 → 단일 민족국가)
김영삼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김대중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노무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명박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남북 통일 방안 비교

남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고려연방제 북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국가 형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연방국가)

자유민주주의

철학

주체사상

자주, 평화, 민주

원칙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남북 구성원 모두

주체

프롤레타리아 계급

없음

전제 조건

국보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주한미군 철수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완성(3단계)

과정

연방 국가 완성 (제도 통일은 후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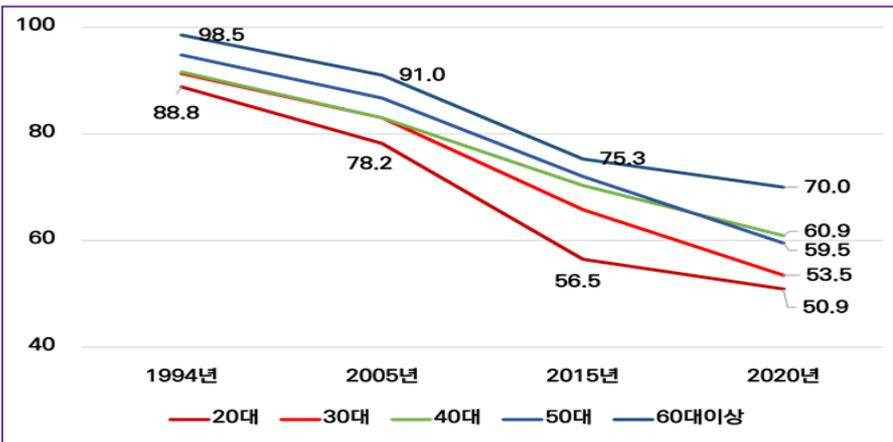
통일 정부, 통일 국회

국가의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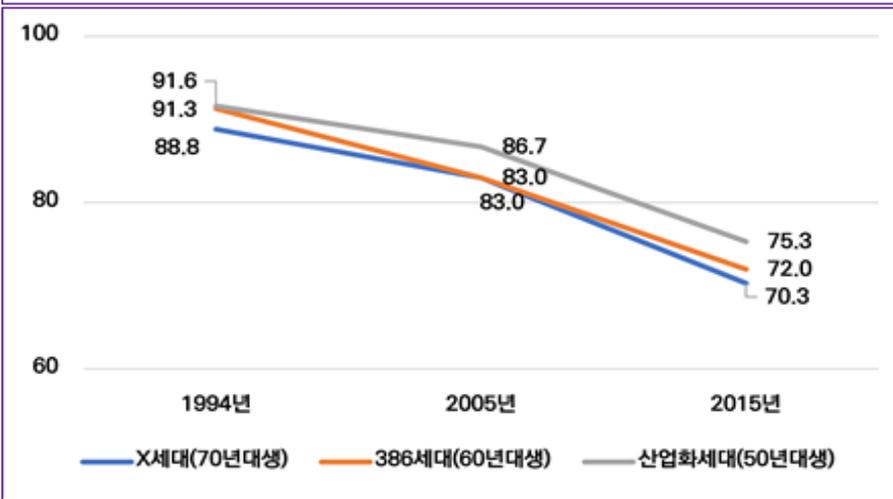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통일의 현재적 의미: 선천적 조건으로서의 분단

통일의식과 관련된 많은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남북 간 이질화나 경제적 격차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며 통일 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 경제적 손실 등의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하기도 한다.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과 세대별 응답 비율

연령대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9~29세	13.3	14.4	7.6	40.8	26.7	27.7	28.3	33.7	29.5	14.0	17.6	28.6	3.6	7.7	6.7
30대	17.3	11.7	16.8	35.6	26.5	26.2	27.4	36.9	26.2	17.5	21.5	23.8	2.3	3.4	7.0
40대	23.2	21.7	23.0	35.4	32.3	35.9	26.4	27.0	21.8	13.8	14.4	16.5	1.1	4.6	2.8
50대	27.2	25.9	28.0	42.2	36.1	34.9	16.0	21.0	18.4	13.3	14.6	13.0	1.2	2.5	5.8
60대 이상	24.6	25.1	26.9	37.5	41.7	33.6	23.4	15.6	18.2	9.3	11.4	18.6	5.2	6.2	2.8

박주화, “2030과 통일인식: 비판 아닌 롤모델이 필요하다” 『통일시대』 (서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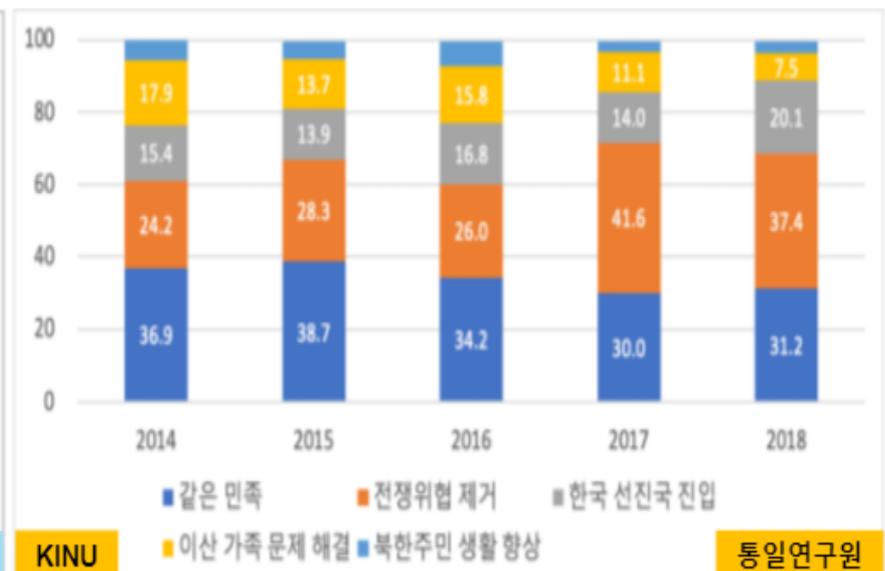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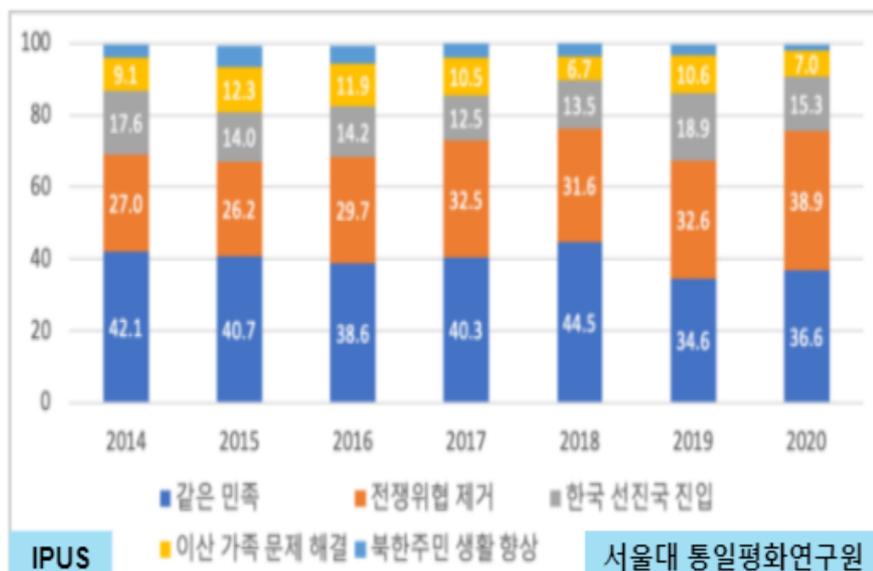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0 한국인의 통일인식“ 학술대회 자료집(2020.10.13)

현실로서의 평화, 당위로서의 통일(민족동질성에서 평화공존으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도	같은 민족 이니까	이산가 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 간에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북한주 권민도 살상 수있도록	한국 민권이 확보되 기 위해서
2007	50.6	8.9	19.2	1.8	18.7
2008	58.4	6.5	14.4	2.9	17.2
2009	44.0	8.5	23.4	4.2	18.5
2010	43.1	7.0	24.1	4.0	20.7
2011	41.7	7.2	27.2	4.8	17.7
2012	45.9	9.1	25.3	4.4	14.5
2013	40.3	8.3	30.8	5.5	14.2
2014	42.4	8.8	26.9	3.8	17.6
2015	41.9	11.5	25.7	6.2	14.1
2016	39.0	12.2	29.2	4.8	14.2
2017	40.3	10.3	32.5	3.9	12.9
2018	45.1	6.9	31.4	3.4	12.9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8 국민 통일의식조사



현실로서의 평화, 당위로서의 통일

교육부 「2020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2018년	2019년	2020년
평화롭다	36.6%	19.0%	17.6%
평화롭지 않다	15.5%	33.7%	35.2%

	2018년	2019년	2020년
통일 불필요	13.7%	19.4%	24.2%
통일 필요	63.0%	55.5%	62.4%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전쟁 위협 해소’(28.4%)가 ‘같은 민족’(25.5%)보다 높게 나타나서, 민족동질성 회복보다 ‘평화’에 대한 요구가 학생들에게 더욱 현실적인 관심사임이 드러남

2020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같은 민족	28.0	34.1	42.4	36.4	41.1
전쟁 위협 제거	48.6	34.0	35.7	38.5	37.8
합계(N)	225	216	248	258	252

현실로서의 평화, 당위로서의 통일

통일의 이익: 전체와 개인



현실로서의 평화, 당위로서의 통일

“불확실한 평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공식적이고 확실한 목표는 여전히 통일이다.

통일은 현실에서의 불확실한 소극적 평화 상태를 전환하여 적극적 평화라는 당위목표를 실제로 구현해가는 과정 및 결과를 망라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통일이 당위의 개념이기에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한 주민 각 개인에게는 통일로 인한 이익도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 쉬우며 이로 인해 미래의 당위적 문제인 통일은 오늘의 현실적 문제인 소극적 평화를 구현하는 일에 비해 당장의 중요도에서 밀려서 표류하기 쉽다.

이런 배경에서 ‘평화공존=사실상의 통일’ 등식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며 통일은 점점 더 먼 미래가 되어가는 인상이다. 심지어 우리는 현재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지금과 같이 단순히 전쟁이 없는 소극적 평화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분단체제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 사회구조적인 모순과 인도적 문제를 제거하는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추구한다면 통일이란 무엇이고, 평화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다시 근본적인 진지한 연구와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통일과 평화는 궁극적으로 어느 한쪽이 우위를 점하거나 선후관계를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절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는 더욱 아니다. 양자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되 상호 연동되며 추동력을 불어넣는 관계이다. 칸트식으로 말하자면 “평화 없는 통일은 맹목이고, 통일 없는 평화는 공허”한 것이다. **남북한의 평화정착은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길이며, 남북한의 통일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루는 길인 것이다.** 한반도의 대전환기에 이 길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환기가 필요한 때이다.”

-정대진, “불확실한 평화에 대한 통일학의 고찰”, 북한연구학회 2018년 동계학술대회

통일평화담론의 전환



화해협력 → 남북연합 → 단일국가

화해협력 → 평화체제 → 평화공동체통일국가

통일은 꼭 단일국가로 해야만 하는가?
통일은 꼭 남북한만이 해야 하는가?

통일평화담론의 전환

통일과정	내용	통일국가형태
3단계과정 (연합 → 연방 → 단일국가)	남북연합/연방 구성 이후 일정 기간 내 단일국가로 통합	3단계 통합과정 단일국가
2단계과정①: 연합 후 통합 (연합 → 단일국가)	남북연합 구성 후 단일국가로 통합	2단계 통합과정 단일국가
2단계과정②: 연방 후 통합 (연방 → 단일국가)	남북연방 구성 후 단일정부로 통합	2단계 통합과정 단일국가
1단계과정①: 국가연합	남북연합 형식의 통합	1단계 통합과정 연합국가
1단계과정②: 연방국가	남북연방 형식의 통합	1단계 통합과정 연방국가

정대진, “남북한 통합형태의 법적 쟁점 ” 『통일과법률』 (법무부, 2018)

통일은 꼭 단일국가로 해야만 하는가?

통일평화담론의 전환: 참고 해외사례

영연방(The Commonwealth)

우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3단계 통일과정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에서 남북연합의 영문 명칭은 The Korean Commonwealth

영연방은 영국과 함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정치적인 국제조직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치령들과 식민지들은 영국으로부터 점차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 나갔으나 영연방의 틀은 계속해서 유지

영연방은 각 회원국들의 가입과 탈퇴를 거쳐 현재는 52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자리를 잡았으며, 영연방기구사무국, 영연방기술협력기금 등을 설립하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운영을 도모

영연방헌장이나 하라레선언(the Harare Commonwealth Declaration), 쿨룸선언(Coolum declaration) 등을 통해 민주주의 정착을 연방의 핵심과제로 천명

그런데 모든 회원국들이 헌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민주주의 정착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고 영국, 캐나다, 호주에 치중된 분담금 문제, 여전히 남아있는 백인중심의 사고체계 등은 해결해야할 과제이며, 동북아 통합과 한반도 통일의 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경제력 분배 등은 유념해야할 과제

통일평화담론의 전환: 참고 해외사례

베네룩스(Benelux Union)

벨기에와 네덜란드 그리고 룩셈부르크를 함께 이르는 말로, 1944년 세 국가가 참여하는 관세동맹 계획이 마련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1921년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먼저 양자적 경제연합 설립을 합의

2차 세계대전 당시 벨기에와 네덜란드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나치독일에 점령되었는데, 이때 함께 영국에 망명정부를 구성

이후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연합 논의에 네덜란드가 참여하면서, 세 국가는 1944년에 런던관세협약(London Customs Convention)을 체결, 이후 1956년에 이르러 베네룩스(Benelux) 내 무역 관세가 철폐되었고, 1958년 2월 베네룩스경제연합(Benelux Economic Union)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연합구성이 구체화

베네룩스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표본이 되었고 유럽통합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금도 상호간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베네룩스 위원회와 의회, 사법재판소 등을 운영하며 정치·행정적 협력도 심화

상호 무역의존도가 높은 동북아 각국들도 관세와 무역, 경제협력을 기초로 해서 통합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충분

통일평화담론의 전환: 참고 해외사례

포르투갈어사용국공동체(Community of Portuguese Language Countries, CPLP)

포르투갈어사용국공동체는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의 연합체로서, 회원국들 사이의 역사적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공통의 유산을 공유하기 위해 1983년 설립

1989년 앙골라, 브라질, 카보베르데, 기니비시우, 모잠비크, 포르투갈, 상투메프린시페의 정상들은 국제포르투갈어기관(International Portuguese Language Institute, IILP) 설립을 결정했고, 이후 포르투갈어사용국공동체는 꾸준히 외형을 넓혀나가 2002년 5월 20일 정상회의 이후 동티모르와 적도기니가 가입하면서 총 9개의 정회원국 확정

포르투갈어사용국공동체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정치적 연합체로서 정치·외교협력(Political and Diplomatic Coordination),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Cooperation in a number of areas), 포르투갈어 장려 및 보급(Promo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Portuguese Language)의 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

테러와 인권문제로 지적을 받는 회원국들이 존재하여 조직의 결속력과 위상에 흠결이 있기도 하지만 언어적, 문화적 유사성을 공통으로 국가 간 협력과 통합을 추진하는 유의미한 사례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통일평화담론의 전환: 참고 해외사례

러시아-벨라루스 연합(Union State)

1995년 2월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관세동맹협정과 우호조약을 체결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천연자원을 공급받고 러시아시장으로의 접근권을 보장받았고, 이때 러시아와 벨라루스 사이의 우호조약 협정에서 두 나라의 통합이 처음 언급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은 우호조약 체결 이후 러시아와의 통합을 묻는 대국민 투표를 실시했는데, 투표 결과 과반수이상의 국민들이 러시아와의 통합에 찬성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1999년 연합형성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Creation of a Union State of Russia and Belarus)을 체결한 이후 공동헌법, 통합의회, 공동국방, 공동외교, 공통화폐, 관세철폐, 국가상징물 통합 등을 합의하며 긴밀한 협력을 강화

하지만 벨라루스는 여전히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러시아로의 일방적인 흡수를 경계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연합설립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압도적인 힘의 불균형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

일찍이 연합(Union State) 설립에 필요한 제반 조건들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통합의 시각 차이가 지적될 수 있고 이는 정치·군사·역사 문제에 있어서 인식의 간극이 큰 동북아 관련국들과도 유사한 면이 있어 주의 깊게 검토할 대상

한반도 통일국가상의 재구성과 평화번영의 미래

비교적 성공적인 통합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영연방의 경우 역내무역 강화를 통한 상호간 이익 확보라는 확실한 경제적 유인을 통해 내부적 결속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베네룩스와 독일을 위시한 유럽통합의 경우 당사자들은 물론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를 확실히 정리함으로써 통합효과를 높이고 향후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

반면 포르투갈어사용국공동체, 러시아-벨라루스 연합처럼 일정한 정도의 통합을 이루었으나 지나친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초기의 통합 명분마저 퇴색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존재

단순한 민족정 동질성이나 정서적 요구만이 아닌 실질적 이해관계 구축과 실용적 접근을 통한 결속이 협력과 통합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

남북한 관계를 이상론적이고 당위론적인 차원이 아닌 현실론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재점검해보고 통일의 의미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

명분은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민족공동체에 입각한 통일담론을 넘어서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통일담론으로의 전환이 필요

그 방향은 남북한만의 구상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한반도 통일평화공동체가 중심이 된 동북아 전체 차원에서의 상상력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

한반도 통일국가상의 재구성과 평화변영의 미래

“지속가능한 평화, 아래로부터의 통일”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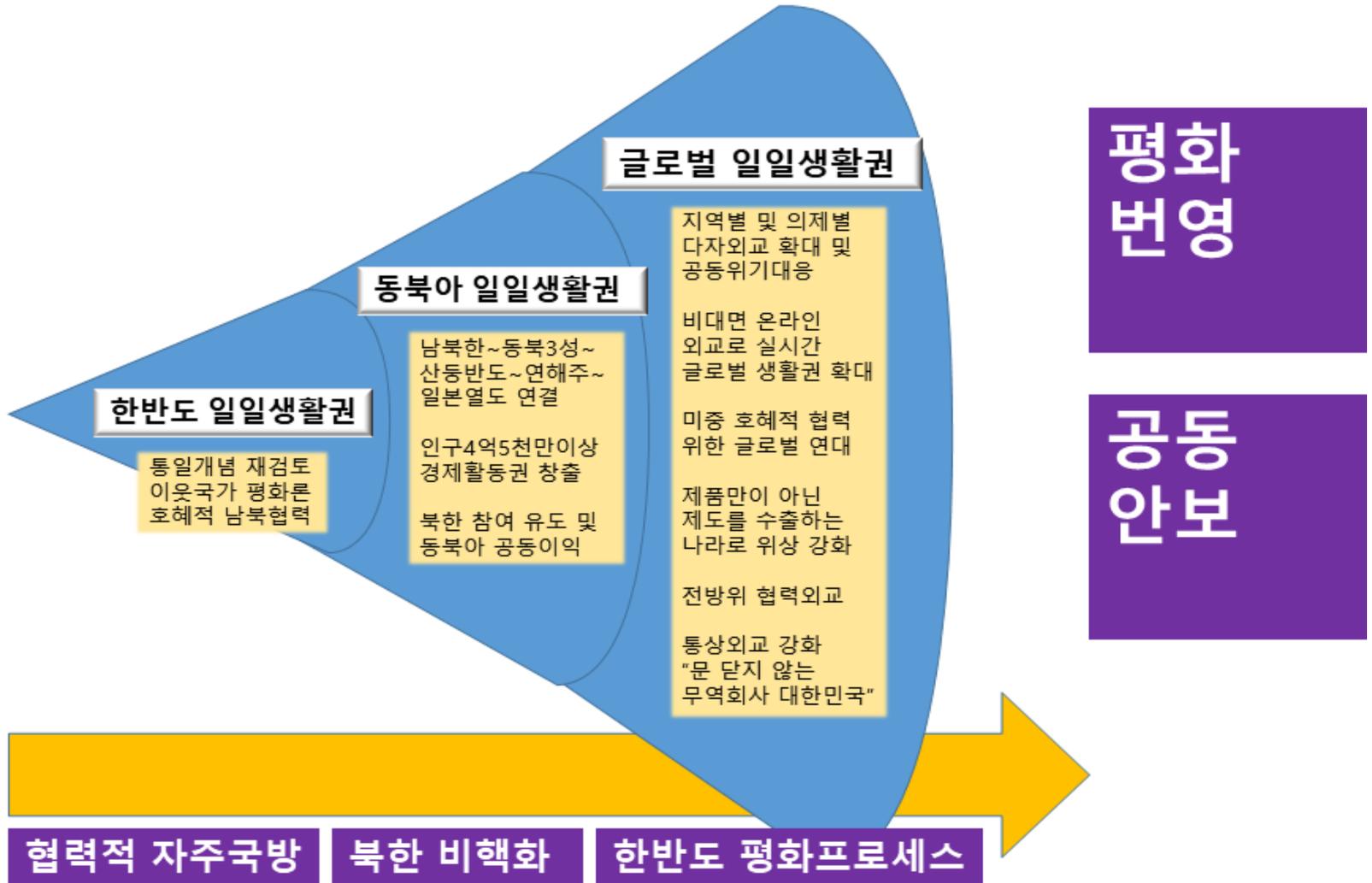
‘지속가능한 평화’는 핵문제와 북미관계에 종속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가 아닌 남북관계 스스로 평화의 원동력이 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추구하는 방향성

‘아래로부터의 통일’은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한다는 위로부터의 통일 담론이 아닌 남북한 주민들이 긴 시간 두고 만나면서 공감대와 신뢰를 형성해가면서 통일 기반을 만들자는 방향성

통일이라는 미래의 이벤트가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과거지향형 가치추구여서는 안 된다는 현재의 문제의식에도 부합

이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대체론이라기보다는 화해협력과 남북연합의 구성 단계를 재해석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자는 의미로도 추진 가능한데 통일의 역사적 당위성을 부인하지 않고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접근법도 필요

통일의 새로운 지평과 상상력



통일은 꼭 남북한만이 해야 하는가?